

'이혼 후 둘째 임신' 이시영, 거미와 감출 수 없는 D라인

등록 2025.09.25 10:57:36



[서울=뉴스시스] 배우 이시영이 가수 거미와의 근황을 밝혔다. (사진=이시영 인스타그램 캡처) 2025.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시스] 신호령 기자 = 배우 이시영이 가수 거미와의 근황을 밝혔다.

이시영은 25일 본인 소셜미디어에 "꽃 들고 언니 만나러 가는 길. 베푸 미연이도 함께. 수다 너무 행복했다"라고 적고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 속 이시영은 한 카페에서 거미와 함께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청순한 미모를 뽐냈다. 모두 임신부인데도 늘씬한 몸매를 보여 이목을 끌었다. 감출 수 없는 D라인도 눈길을 끌었다.

이시영은 "언니 배. 내 배"라고 설명을 덧붙이며 훈훈함을 더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름다워요", "항상 행복하시고 순산하세요" 등의 댓글을 올렸다.

한편 이시영은 2017년 9월 조승현(52) 씨와 결혼, 4개월 만인 이듬해 1월 아들을 낳았다. 올해 3월 이시영은 조 씨와의 이혼을 발표했다.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상호 원만하게 합의해 이혼 결

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지난 7월 8일 이시영은 전(前)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인 인스타그램에 "현재 임신 중이다.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내가 내린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안고 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시영 전 남편 조승현 씨도 디스패치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혼한 상태라 둘째 임신에 반대한 건 맞다. 하지만 둘째가 생겼으니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 첫째가 있으니 자주 교류하며 지냈다. 둘째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시영은 본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신 8개월에도 체중이 4kg 늘어난 상황을 털어놓은 바 있다.

거미는 2003년 1집 '라이크 뎀(Like Them)'으로 데뷔했다. '눈꽃' '죽어도 사랑해' '그대라서' '미안해요'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그대 돌아오면' 등 히트곡을 냈다. 배우 조정석과 2018년 10월 결혼해 2020년 딸을 낳았다. 지난 7월 거미 소속사 아메바컬처는 "아직 임신 초기인 만큼 조심스러운 단계"라며 거미의 둘째 임신을 알렸다.



[서울=뉴시스] 배우 이시영이 가수 거미와의 근황을 밝혔다. (사진=이시영 인스타그램 캡처) 2025.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시영. (사진=이시영 인스타그램 캡처) 2025.09.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